‘참여 · 도약 · 미래’ 토대 중점공약 제시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광용 스님 공약은

제12대 집행부 성과 계승 · 발전
복지환경 조성해 화합 승가 구축
신뢰받는 비구니승가 구현 목표
6천여 비구니에 “함께하자” 당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사실상 당선된 광용 스님이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참여 · 도약 · 미래로 나아가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용 스님이 제시한 영역별 중점 추진과제는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성과 계승 · 발전 △서로 돕고 협력하는 화합 승가 △비구니승가 역량 강화 · 인재육성 진력 △안정적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승가 위상 · 정체성 확립 △사회문제 적극 참여로 대중에 신뢰받는 비구니승가 구현이다.

광용 스님은 먼저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 · 개정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비구니회관을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시킨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4년간의 성과를 계승 ·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통합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구니스님들의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 승가공동체 정신회복을 위한 수행결사’ 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푸르니청정도량운동, 종교차별 문제대책위 활동, 다문화가족 및 재한미얀마청년 지원사업 등 12대에서 진행한 대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외연 확장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승가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광용 스님은 화합 승가 구현에 방점을 뒀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와 각 지회 간의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 지회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 마련으로 화합 비구니승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사찰운영 · 신행 · 상담 · 포교에 전문화된 법사스님과 소임자스님을 연계하거나 후계자 계승을 위한 사찰과 비구니스님 간 연계서비스 도입, 소임에 따른 스님 간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대감을 고취하는 화합 승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광용 스님.

인재 육성이 비구니승가 역량강화의 기틀이라는 신념도 드러냈다. 비구니스님에게 최적화된 소임플랫폼 구축 확대와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사회복지, 참선수행, 포교 등에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스님 인재풀 DB구축 ·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재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비구니승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현재 전국비구니회에서 시행 중인 인문학 일요강좌 등과 더불어 외국어, 국제 비즈니스, 불교 문화콘텐츠 활용, 유튜브 활용법 등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교육 수요에 최적화된 연구교육프로그램을 전국비구니차원에서 도입, 운영해 능력개발 의지가 강한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개진한다. 해인사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수행도량 지정과 지원 등을 통해 비구니스님들의 노후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가가는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제 또는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전국비구니회원장’ 시행 계획을 밝힌 광용 스님은 “노후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각종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비와 법복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대 구축도 선언했다. 사찰음식과 차문화, 불교영적돌봄, 상담 등 비구니스님이 지닌 강점이자 현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불교문화콘텐츠의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관련 신문자료 디지털화와 비구니 인물 위키백과사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수행전통을 적극적으로 선양하겠다는 의지다.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과 종교편향 등에 대한 단합된 활동, 사회적 약자 및 이주민 지원, 샤캬디타 여성불자대회 참여 등 전 인류가 고민하는 의제들에 대해 이웃종교와 시민사회단체, 정부, 지체제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 · 협력해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승가를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광용 스님은 “모든 과업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6천 여 비구니스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 따끔한 경책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추진하는 화합된 비구니 승가문화가 바로 이 모든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 “힘찬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용 스님은…

1972년 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3년 대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해 내원사 · 불영사에서 안거 수행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 · 경전연구회를 졸업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석사를 수료하고,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원을 1회로 졸업했다.

도심포교 일환으로 1994년 대림포교원을, 1999년 조계종 성림사를 개원했다. 경기도 요양보호사자격증 1급, 불교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하고 불교상담개발원 이사와 마포구불교사암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림사 회주와 묘엄불교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한마음요전’에 담긴 지계바라밀은

대행선연구원, 16회 계절발표회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행장, 법어 등이 수록된 〈한마음요전〉에 담긴 지계바라밀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계절발표회에서는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 을, 이상호(서강대) 박사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 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해인사 율원장 금강 스님,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윤리학과 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지난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 단체 소개에는 안양본원 선법합창단이 소개된다. 발표는 김진용 합창단장이 맡는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와 더불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불교학 관련 전공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진관사 국행수륙재’ 모든 것 만난다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큰스님 초청 법문 ‘주목’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은 한국대표 불교의례,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를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경내에서 설행한다.

진관사는 9월 3일 오전 10시 경내 함원당에서 입재식을 갖고 매주 기도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진관사 수륙재문화재 지정 10주년 기념식’ 을 시작으로 수륙재 낮재에 해당하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법문이 이어진다. 22일에는 수륙재 밤재인 수륙연기,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회향봉송이 진행된다.

매주 큰스님들의 초청 법문도 준비돼 있다. △범어사 前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이 ‘수륙재 공덕의 복전 · 비전 · 경전 · 이전’ (9월 3일) △봉녕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이 ‘선재동자에게 광수공양을 설하다’ (9월 10일)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이 ‘모두 함께 고통의 바다를 여의게 하소서 : 물고기와 새우와 게들도 저 파도 아래에서 법문을 듣다’ (9월 17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대종사가 ‘미래세대의 불교를 위한 화두와 다라니, 그리고 기도’ (9월 24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바보 반특비구의 게송으로 절의 정문을 세 번 두드리다’ (10월 1일) △보리마을 자비선원명상원 선원장 지운 스님이 ‘수륙재 회향공덕의 선순환과 공동체 가치의 확장’ (10월 8일) △조계종 前전계대화상 성우 대종사가 ‘발원자는 품속의 보배를 얻고 영가는 대승의 보살계를 받다’ (10월 15일)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감로, 함께하는 세계를 위한 축복과 환희’ (10월 21일)를 주제로 법문한다.

이외에도 10월 3일에는 ‘제19회 달오름 산사음악회-음악명상 콘서트’ 가, 10월 5~9일에는 지화전시 ‘가피의 향기-꽃으로 피어나다’ 가 한문화체험관 3층 아름다움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日, 생태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조계종 사노위 · 불교기후행동
일본대사관 앞 기도회 봉행



“불교계는 그간 1인 시위, 문화캠페인, 서명운동 등으로 뭇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인류와 뭇생명을 향한 핵테러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정토세상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출 때까지 더 많은 시민과 힘 모아 정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지구 공동체의 안전을 발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불교기후행동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2023 일본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불교 기도회’ 를 봉행했다.〈사진〉 기도회는 한주영 불교기후행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발언, 발원문 낭독, 신묘장구대다라니 3독, 관음정근, 반야심경 독송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언에 나선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오염수가 방류된 지 1주일이 지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님은 “오염수는 수많은 바다 생명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어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다”며 “해양 방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문 스님은 한국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현재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과 가장 인접함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대로 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묵인 · 승인하는 것과 같다”며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고금 스님도 “해양 생물들이 무참히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 비통하다”며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는 조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 간절히 기도올린다”고 밝혔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실천불교승가회 명예대표 퇴휴 스님이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했다.

김내영 기자

